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 연구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학습자 문어 말뭉치를 중심으로—

이정현*

— 차례 —

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 대상 및 방법
4.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 분석
5. 결론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jeongyheonlee@yonsei.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오류주석 말뭉치>를 활용하여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권 학문 목적 학습자의 문어 말뭉치에서의 조사 누락 오류를 분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인 One-way ANOVA를 활용하였으며, 언어권 간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질적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조사별 누락 오류 분석에서는 일본어를 제외하고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에서 그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보조사와 목적격조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어에서는 부사격조사 ‘에’와 관형격조사 ‘의’가 높게 나타났다. 언어권별 숙달도 빈도 비교에서는 일본어는 조사 오류 빈도가 비교적 낮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반면, 중국어에서는 초급과 중급이 고급에 비해, 베트남어와 영어에서는 초급이 중급과 고급에 비해 조사 누락 오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주석 말뭉치, 오류 주석, 조사 오류, 누락 오류, 한국어교육

1. 서론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주석 말뭉치를 활용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란 ‘한국 내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말한다.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와 구별되는 교육 과정의 필요를 가장 먼저 제시한 김정숙을 시작으로, 유학생의 증가에 따라 2005년부터 양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당시의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 방안, 쓰기, 어휘, 그리고 중국어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학습 목적을 세분화하고 학습 목적에 따라 구별된 교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다른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 비해 한국어를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사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에 학습자는 대학생활에 반드시 수반되는 활동인 보고서 작성, 시험 답안 작성 등 오류가 가지적으로 나타나는 쓰기 맥락에서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은 대학(원)에서의 학술적 능력 평가의 자료가 되기에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어, 학문 목적 학습자의 쓰기는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초점을 맞추어,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류주석 말뭉치 구축 현황에서의 상위 4개 언어권인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고려하여 쓰기(문어)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며, 구어에 비해 보다 직관적으로 오류로 인식되는 문어에서의 조사 누락 오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선행 연구

2장에서는 2000년에서부터 시작하여 2005년부터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와 한국어 학습자 오류주석 말뭉치를 활용하여 조사 오류를 살펴본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박석준(2008)과 민현식(2008) 그리고 김정숙(2000)을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의 개념과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교수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을 살펴볼 것이다. 박석준은 그전까지 공유되고 있던 한국어의 하위 유형 분류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가 일반 목적 한국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특수 목적 한국어의 개념 정리에 대한 필요에 따라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을 「특정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과 용도를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고 한정된 한국어 내용과 기능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하는 것」¹⁾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개념과 유형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²⁾.

<표 1> 학문 목적 한국어의 하위 한국어 유형과 그 개념

학문 목적 한국어	공통 한국어	기초에서부터 중고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한국어 사용에서 공통되고 일반적인 한국어
	교양 한국어	대학 등에서 교양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
	전공 한국어	대학 등에서 전공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

민현식(2008)은 학문 목적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으로 학업 기술과 문법 능력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³⁾.

1 박석준, 「국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대학(원) 입학 후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008권(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199면.

2 박석준, 「국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대학(원) 입학 후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008권(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199면.

3 민현식,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 학업 기술(study skill): 학업 기술은 전공 학문을 연구 및 학습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술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 기능을 통합하여 학문적 독해 능력(전고 도서 논문 읽기), 학문적 작문 능력(논문 작성법 익히기: 각주 달기, 참고문헌 작성하기, 인용하기), 학문적 담화 능력(질의, 발표 능력), 도서관 이용 능력 등의 기술이다.

① 학문적 담화 능력

말하기: 질문 언어, 세미나 언어, 발표 언어

듣기: 교수 언어(강의 언어), 질문 언어, 토론 언어, 세미나 언어, 속청 및 경청 능력

② 학문 독해 능력

읽기: 전공 서적, 전공 학술 논문집, 전공 잡지, 교양서적, 신문 읽기, 속독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③ 학문 작문 능력

쓰기: 강의 내용 요약하기, 교재 내용 요약하기, 보고서, 시험 답안지 작성하기, 학술 논문 쓰기

(2)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 능력

① 발음 능력: 발표 시의 정확한 발음법, 수강 시의 속청, 경청 능력

② 어휘 능력: 전공 어휘 목록(전공 기초 어휘, 전공 심화 어휘), 교양 교과 어휘, 한국어 일반 어휘, 외국어, 외래어 용어 및 학생 은어 이해, 정확한 어휘 사용 능력

③ 문장 능력: 비문 식별 능력, 퇴고 능력

④ 담화 능력: 의미, 화용적 언어 능력

김정숙(2000)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를 목적

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을 50명을 대상으로 학습 요구(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언어 기술 및 기능 조사 결과, ‘쓰기>듣기>읽기>말하기’ 순으로 필요도가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말하기’ 기능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쓰기 다음으로 듣기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에서 강의 수강을 위한 것으로 학문적 담화 능력에서의 듣기 능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 개인이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 향상시켜야 하는 한국어 기술에 대해서도 ‘쓰기>듣기>읽기>말하기’ 순으로 나타나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쓰기 기능에서 큰 학습 요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 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에서 86%의 응답자가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김정숙은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학문적 텍스트를 활용한 지적, 전략적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정숙(2000)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의 필요를 생생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제로 학문적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⁴

다음으로는 한국어 학습자 오류주석 말뭉치를 활용하여 조사 오류를 연구한 장석배(2019), 유문명(2019), Chen Jing·이정희(2020)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의 세 연구는 모두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주석 말뭉치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장석배(2019)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유형과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여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위 5개 언어권인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의 조사 오류 양상 빈도를 원시 빈도와 1,000 어절 당 빈도인 상대 빈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 결과 두 번째로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일

4 김정숙,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대학 진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1권 2호(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0), 3-18면.

본어권에서 대치, 누락, 첨가, 오형태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영어권의 경우 오형태를 제외한 세 가지 양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권 학습자의 등급별 조사 오류 양상에서는 1, 2급 학습자의 오류가 다른 급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대치와 누락에서 5급 학습자가 3, 4급 학습자에 비해 더 많은 오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고급 학습자도 여전히 조사의 대치와 누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석배는 영어권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과 오류 유형을 당시 가장 큰 규모로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오류주석 말뭉치를 활용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조사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교재 및 교육과정에서의 개발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⁵

유문명(2019)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중국어권 학습자의 목적격 오류를 분석하였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목적격 오류에서는 대치<누락>오형태>첨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했다. 유문명(2019)은 ‘목적격 조사 오류율은 학습 단계에 따라 변화가 있는가?’, ‘목적격 조사 오류의 양상별 비중은 학습 단계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가?’의 두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학습 단계에 따른 목적격 조사 오류 양상별 비중에서는 오형태가 학습 단계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 첨가는 큰 변화가 없었고 누락 오류는 약간 증가하였다. 누락 오류의 경우에는 중국어에 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조사 사용에 주의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다른 오류 양상과 달리 대치 오류는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문명(2019)은 오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 내/간 간접 오류의 개념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6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양상을 보인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후행 용언의 영향, 의미 오류, 배제적 간접’을 중심으로 원

5 장석배,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에 대한 계량적 연구-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제47권(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9), 25-54면.

인을 제시하였다.⁶

마지막으로 Chen Jing·이정희(2020)는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조사 누락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오류의 유형 및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Chen Jing·이정희(2020)는 2018년 11월까지 구축된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누락 오류의 단순 빈도는 4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누락 오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1~6급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hen Jing·이정희(2020)는 등급별로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주격조사 및 목적격조사의 누락 오류율은 초급에서 중급까지 상승하다 이후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관형격조사는 초급에서 고급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사격조사는 중급까지 감소하다 중급 이후로 증가하였다. 반면, 보조사의 경우 초급부터 고급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등급별로는 초급에서는 보조사가, 중급과 고급에서는 주격조사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별 누락 오류율에서는 ‘주격조사>관형격조사>목적격조사>부사격조사’순으로 나타났다. Chen Jing·이정희(2020)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를 등급별, 조사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다른 오류 양상에 비하여 규명하기에 어려운 누락 오류를 대규모 말뭉치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⁷

3. 연구 대상 및 방법

국립국어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사업’을 통해 139개국의 92개 언어권에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해

6 유문명, 「학습자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목적격 조사 오류 연구」, 『언어와 문화』 제15권 1호(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9), 224-246면.

7 Chen Jing·이정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조사 누락 연구」,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58권(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319-349면.

오고 있으며, 원시 말뭉치, 형태 주석 말뭉치, 오류주석 말뭉치 세 가지 종류로 구축하고 있다.

〈표 2〉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규모

	합계		문어		구어	
	어절 수	표본 수	어절 수	표본 수	어절 수	표본 수
원시 말뭉치	4,389,460	29,940	3,278,600	27,399	1,110,860	2,541
형태주석 말뭉치	3,503,606	23,906	2,502,135	21,641	1,001,471	2,265
오류주석 말뭉치	996,160	5,787	501,110	4,644	495,050	1,143

본 연구는 오류주석 말뭉치의 80.2%를 차지하고 있는 문어를 대상으로 한다. 언어권은 구축 현황에서의 상위 4개를 대상으로 하며, 비율로 보았을 때는 43.6%(중국어), 12.7%(일본어), 8.4%(베트남어), 6.8%(영어)로, 전체의 71.5%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권의 비율은 문어와 구어를 합친 값으로, 문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 할 수는 없으나 문어가 전체의 80.2%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상위 4개 언어권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오류주석 말뭉치에서의 오류 주석 표지는 오류 위치, 오류 양상, 오류 층위로 구분된다⁸. 오류 위치는 오류가 나타난 언어 형태의 품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형태 분석이 된 품사 정보를 기반으로 주석된다. 오류 양상과 오류 층위는 오류 어절에만 주석되며, 하나의 오류는 오류 양상이나 오류 층위에 따라 구분된다. 오류 양상은 오류 어절과 교정 어절을 비교하여 대치, 누락, 첨가, 오형태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오류 층위는 언어적 층위에서 오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주석 단위에 복수의 오류 층위 주석이 가능하다⁹. 오류 양상 주

8 국립국어원, 『2016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사업 보고서』(국립국어원, 2016), 14면.

9 장석배,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에 대한 계량적 연구-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제47권(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석과 본 연구에 해당하는 오류 주석 틀 및 주석 표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오류 양상 주석 체계

	오류 유형	주석 표지
오류 양상	대치	REP(Replacement)
	누락	OM(Omission)
	첨가	ADD(Addition)
	오형태	MIF(Misformation)

〈표 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 주석 틀 및 주석 표지

범주	오류 유형	주석 표지	
오류 영역	기능어	주격조사	FNP
		관형격조사	FGP
		목적격조사	FOP
		부사격조사	FAP
		호격조사	FVP
		인용격조사	FQP
		보조사	FXP

본 연구는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먼저, 언어권에서 상위 4개의 언어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이렇게 1차로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학문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다음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을 추출한다. 키워드 중에서 ‘언어 공부’, ‘한국 문화 공부’ 등 대학 강의를 수강하거나 대학, 대학원 입학의 목표로 하는 학문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한 것을 제외한다.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대학, 대학원, 박사, 보고서, 부전공, 석사, 연구, 유학, 전공, 진학, 학교, 학문 목적, 학업, 학위. 이렇게 추출한 기본 자료의 총 어절 수는 136,758이며, 언어권별로는 중국어 67,133, 베트남어 30,629, 영어 23,712, 일본어 15,284이다. 기존의 언어권별 구축 현황에 제시되어 있는 규

모 순서와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의 규모 순을 따라 분석 결과를 기술하기로 한다.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오류주석 말뭉치를 활용하여 조사 누락 오류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학문 목적과 언어권으로 한정된 말뭉치를 대상으로, 통계 프로그램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언어권 간의 오류 양상 빈도 비교와 언어권 내 초·중·고급별 빈도 비교를 실시한다. 또한 용례를 통해 오류 유형을 살펴보고, 언어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것이다.

4.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 분석

4.1. 언어권별 조사 오류 양상 빈도 비교

조사의 누락 오류에 초점을 맞추기에 앞서 상위 4개 언어의 오류 양상별 빈도를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오류주석 말뭉치에서 언어권마다 자료의 비율이 달라, 비교가 가능하도록 원시 빈도와 함께 1,000 어절 당 상대 빈도를 함께 표로 작성하였다.

〈표 5〉 언어권별 조사 오류 양상 빈도

오류 양상	언어권	원시 빈도	1,000 어절 당 빈도
대치	중국어	3030	45.13
	일본어	320	20.94
	베트남어	1495	48.81
	영어	987	41.62
누락	중국어	1647	24.53
	일본어	111	7.26
	베트남어	555	18.12
	영어	533	22.48

첨가	중국어	334	4.98
	일본어	58	3.79
	베트남어	207	6.76
	영어	153	6.45
오형태	중국어	254	3.78
	일본어	35	2.29
	베트남어	124	4.05
	영어	69	2.91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네 언어권에서 모두 대치>누락>첨가>오형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어권은 다른 언어권에 비해 매우 낮은 오류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네 언어권 중 유일하게 조사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 언어권 간의 누락 오류 평균 비교

종속 변수	언어권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정 결과
누락 오류	중국어(a)	29.0298	31.57733	14.715/ 0.000 [*]	a,c,d)b (scheffe검증)
	일본어(b)	7.7569	12.62222		
	베트남어(c)	24.7899	31.62099		
	영어(d)	24.7899	31.57198		

^{*}p<0.05

다음으로는 오류 양상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누락 오류에서 통계 프로그램인 One-way ANOVA를 활용하여 언어권 간의 누락 오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언어권 간의 누락 오류에서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권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국어와 일본어, 베트남어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와 일본어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본어가 다른 언어권에 비하여 낮은 조사 오류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4.2. 조사별 누락 오류 분석

오류분석 연구에서는 오류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언어 간 간섭에 의한 오류, 언어 내 간섭에 의한 오류, 그 외의 원인에 대한 오류로 분류하여 규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 분석은 어느 정도까지의 분석은 가능할 것이나, 학습자마다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수와 능력, 그리고 간섭을 줄이는 전략의 사용 능력 등 학습자의 변인이 다양하기에 오류 분석에 대한 완전한 규명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학습자가 산출한 오류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교수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며, 이는 분명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 누락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배제적 간섭 오류의 관점에서 언어 체계에 조사가 없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조사가 있는 일본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위 10개 조사 누락 오류 빈도를 살펴보면 이형태에 따라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조사의 유형으로 제시하였을 때 일본어를 제외하고 보조사, 목적격조사,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어는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목적격조사, 주격조사, 보조사 순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조사, 목적격조사,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순으로 다루기로 한다. 상위 10개 항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7〉 언어권별 상위 10개 조사 누락 오류 빈도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1	조사	는	에	는	을
	상대 빈도	43.82	37.51	31.75	44.94
2	조사	을	의	을	는
	상대 빈도	40.35	23.08	31.33	39.46
3	조사	가	을	가	를
	상대 빈도	38.34	17.31	28.83	39.46

4	조사	이	이	를	이
	상대 빈도	37.06	14.43	26.74	30.69
5	조사	를	는	이	가
	상대 빈도	31.58	10.10	24.23	30.15
6	조사	에	가	에	에
	상대 빈도	25.92	8.66	17.55	27.95
7	조사	의	를	의	의
	상대 빈도	22.82	8.66	15.88	21.92
8	조사	은	은	은	은
	상대 빈도	16.07	5.77	11.70	9.32
9	조사	와	로	에서	에서
	상대 빈도	7.67	4.33	5.85	7.67
10	조사	에서	와	도	와
	상대 빈도	5.84	4.33	5.01	5.48

4.2.1. 보조사 ‘은/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는 조사가 없는 언어로, 오류분석 연구에서 오류의 유형을 분류할 때 학습자의 L1에 없어 나타나는 ‘배제적 간섭’으로 이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보조사의 경우 모든 언어권에서 ‘는’이 ‘은’에 비해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일본어를 제외하고 세 언어권에서는 ‘는’과 ‘은’의 차이가 약 3배 이상으로, 보조사 ‘는’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제 어머니^{*}∅(√는) 잘 요리합니다. (베트남어, 1급)
- (2) 그래서 10분 후에 우리^{*}∅(√는) 학교 근처 편의전에서 아이스크리모를 먹었다. (중국어, 2급)
- (3) 처음에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2급)
- (4) 저는 알뜰족^{*}∅(√은) 아니지만 닳아는 부분이 있다. (일본어, 4급)
- (5) 그래서 지금 한국의 시골에서^{*}∅(√는) 예전에 전통적인 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 5급)
- (6) 저는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기부를 한번^{*}∅(√은) 한 적이 있을

것 같다. (베트남어, 5급)

(7) 즉, 인간 복제*∅(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과학을 발달할 수 있으면, 다른 용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어, 5급)

보조사는 다른 격조사와 달리 문법적 기능이 아닌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로, ‘주제’의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 ‘은/는’은 다른 보조사인 ‘도/만/부터’ 등보다 의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주격조사 ‘이/가’와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보조사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Chen Jing·이정희(2020)는 높은 오류 빈도를 보이는 이유를 주제 표지어로서의 보조사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중국어에 대응되는 문법 형식이 없다는 배제적 간섭을 원인으로 설명하였다¹⁰. 다른 오류 양상에 비하여 누락 오류가 어떤 문법 형태를 사용할지 예상할 수 없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에 한계가 있으나, 일본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에서 보조사 ‘는’이 상위 1, 2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보조사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예문 (5)를 살펴보면 격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격조사와 함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보조사의 경우에는 오류 주석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격조사, 그 중에서도 주로 부사격조사와 보조사를 함께 쓸 수 있으며, 이는 용법에 따라 의미의 강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교수하여 학습자가 풍부한 문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에서만 나타난 보조사 ‘도’의 경우에는 부사격조사 ‘에서’와 상대빈도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베트남어권 학습자에게는 유효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 Chen Jing·이정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조사 누락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58권(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326면.

4.2.2. 목적격조사 ‘을/를’

앞 절에서의 보조사와 달리 목적격조사는 ‘을/를’ 두 가지로 이 역시 이형태를 통합하였을 때에는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쓰임이 보조사에 비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권에 있어 고르게 나타나며, 그 순위가 보조사와 함께 1, 2위를 차지한다. 학습자들이 산출한 오류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8)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고 소주를 마셨어요. (영어, 1급)

(9) 대법원에서 만정일치로 인종*∅(√을) 분리하는 법들이 헌법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100년 동안 인종 분리되 법들을 폐기했다.

(베트남어, 6급)

예문 (8)에서, 앞의 목적어에는 목적격조사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뒤의 목적어에는 목적격조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어에서는 병렬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중복되는 어휘를 최대한으로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문장 구조 및 언어 관습이 반영된 오류의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예문 (9)의 경우에는 베트남어에서의 문장 구조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와 베트남어는 한자를 사용하는 언어권으로, 각 어휘의 고유 품사와 더불어 문장 구조에 따라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하면 위치가 바뀌어도 그 품사와 의미가 유지되는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장 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의 목적격조사 누락의 원인으로 고려해볼 만한 것은 중국어에서의 ‘이합동사’이다. 중국어에서의 이합동사란 자체로 술목구조를 가지는 어휘로, 吃饭(밥을 먹다)와 같이 ‘동사+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합동사 구조에 대한 서술은 중국어를 L2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하는 문법으로, 중국인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합동사를 의식하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문법구조가 한국어에

서의 목적격조사 사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4.2.3. 주격조사 ‘이/가’

- (10) 그리고 밥 먹은 후에 밥 열두시까지 기다리고 열두시*∅(√가) 되면 불
꽃놀이를 한다. (중국어, 4급)
- (11) 그런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는 곡류를 되도록 적게 먹으면
좋다. (중국어, 5급)
- (12) 내 성격이 밝기는 하지만 한국말을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
도 없었다. (베트남어, 2급)
- (13) 왜냐하면 서울의 지하철*∅(√이) 편리해요. (영어, 1급)

예문 (10), (11)는 중국어 학습자가 산출한 오류로, 문장에서 한 개의 주격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3급 이상의 중급 학습자가 쓰기에서 교체나 오형태와 같은 오류가 아닌 누락 오류를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사 사용에 대한 확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주격조사의 사용을 회피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문 (12)의 경우에는 주격조사의 적절한 사용과 누락 오류가 동일한 문장에 있으며, 이를 베트남어로 번역해 보았을 때 학습자로 하여금 ‘친구’에 해당하는 주격조사를 누락한 것이 아닌, 후행하는 한 명‘도’에서의 보조사 ‘도’에 결합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주격조사에서의 오류는 중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구조와 연결되며, 4.2.2.에서 살펴본 목적격 조사와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문 (13)는 매우 단순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번역하였을 때 동사 ‘be’와 형용사가 함께 사용되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에 따라 한국어에서의 작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be’ 동사를 사용하는 영어에서는 한국어 문장에서 서술어와 주격조사를 함께 사용하는 문장 형식을 교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4.2.4. 부사격조사 ‘에/에서/와’

부사격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조사 오류가 가장 낮은 일본어권의 누락 오류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조사라는 점이다. 일본어에서의 오류를 먼저 살펴보면, 아래의 예문 (14)와 같이 보조사와 함께 사용해야 할 때 격조사를 누락하고 보조사만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4.2.1.에서 보조사를 누락하고 격조사만을 사용한 예문과 대조적인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된 형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예문 (15)의 경우 필요한 부사격조사 ‘에’가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후행하는 ‘에서’가 다소 어색하다는 점에서 해당 오류를 산출한 학습자가 부사격조사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수업이 끝난 후* \emptyset ($\sqrt{\text{에}}$)는 친구와 같이 학생 식당에 갑니다. (일본어, 2급)
- (15) 8월 3일* \emptyset ($\sqrt{\text{에}}$) 중국인 언니에서 연락이 왔다. (일본어, 4급)
- (16) 주말에 친구* \emptyset ($\sqrt{\text{와}}$) 같이 요리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중국어, 2급)
- (17) 고등학교 친구* \emptyset ($\sqrt{\text{와}}$) 함께 처음 해외여행했다. (영어, 3급)

부사격조사의 경우에는 중국어와 영어에 대응하는 어휘(품사)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예문 (16)의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개사 跟를 사용해야 하고, 예문 (17)의 경우에는 전치사 with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교수 시에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L1의 문법을 활용하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는 있으나 해당 L1에 비슷한 용법의 품사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적 간접만으로 조사 오류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외에도 예문 (17)는 학습자가 사용한 ‘함께’가 학습자는 부사격조사 ‘와’를 대체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조사 오류

분석 시에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4.2.5. 관형격조사 ‘의’

관형격조사는 일본어에서 상위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중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영어 모두에서 일곱 번째에 나타났다. 다른 조사에 비하여 단 한 가지 항목인 ‘의’로, 예문 (18)에서는 문장 구조의 영향을, (19)에서는 해당 영어 어휘 품사의 영향을 추측해볼 수 있다

- (18) 그전 때 중국에서 2-3만 원으로 5-6권* \emptyset (\surd 의) 책을 살 수 있었다.
(중국어, 2급)
- (19) 즉 아이를 보호해 봤자 개인* \emptyset (\surd 의) 집으로부터라도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영어, 6급)
- (20) 저는 베트남* \emptyset (\surd 의) 타이응우연(Thai Nugh) 살았습니다. (베트남어, 1급)
- (21) 한국인은 세계 여러 나라* \emptyset (\surd 의) 사람보다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어, 6급)

반면 예문 (20)의 경우에는 모어 화자의 ‘의’ 사용과 대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L1으로 하는 화자의 경우에도 출신이나 장소의 이동을 말하거나 쓸 때 ‘의’를 쓰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예문 (20)와 같은 경우에는 주석 안내와 주석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오류로 주석하고 교수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고급 학습자의 오류인 예문 (21)의 경우에는 일본어에 대응하는 조사 \emptyset 를 고려하였을 때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학습자 오류로 보인다.

4.3. 언어권별 숙달도 빈도 비교

3절에서는 언어권별 초·중·고급에서의 빈도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언어권 간의 오류 양상 빈도 비교와 같이 통계 프로그램인 One-way ANOVA를 활용하였다.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에서는 숙달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일본어는 누락 오류가 많지 않고 표본이 크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중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영어의 결과값을 분석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표 8〉 중국어 숙달도 빈도 비교

종속 변수	숙달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정 결과
누락 오류	초급(a)	31.66	30.246	10.746/ 0.000 [*]	a,b)c (scheffe검증)
	중급(b)	28.95	27.977		
	고급(c)	17.25	16.343		

^{*}p<0.05

중국어에서 초·중·고급 간의 누락 오류에서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도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급과 고급, 중급과 고급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평균값을 보았을 때 고급이 초급과 중급보다 유의하게 낮아 고급으로 갈수록 누락 오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급과 중급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수록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9〉 베트남어 숙달도 빈도 비교

종속 변수	숙달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정 결과
-------	-----	----	------	---------	---------

누락 오류	초급(a)	20,3635	29,49656	15,649/ 0,000*	a>b,c (scheffe검증)
	중급(b)	8,0988	15,14321		
	고급(c)	6,9168	13,26516		

*p<0,05

〈표 10〉 영어 숙달도 빈도 비교

종속 변수	숙달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정 결과
누락 오류	초급(a)	45,1776	53,09206	10,985/ 0,000*	a>b,c (scheffe검증)
	중급(b)	22,3708	23,57451		
	고급(c)	10,0214	10,02222		

*p<0,05

베트남어와 영어에서도 초·중·고급 간의 누락 오류에서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 결과를 보면 두 언어권 모두 초급이 중·고급보다 유의하게 높아 베트남어와 영어에서는 초급일 때 누락 오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와 같이 중급과 고급 사이의 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 프로그램에서의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각 숙달도별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에 중·고급에 비해 초급에서 누락 오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정도의 결과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초급에서 조사 누락 오류뿐 아니라 다양한 오류에서 오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통계 결과를 효과적으로 교육방안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오류주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0년 12월까지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국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큰 규모의 말뭉치 자료로 학습자들의 실제 오류를 살펴볼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장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개념과 연구, 그리고 학습자 오류주석 말뭉치를 활용한 조사 오류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오류 양상에 있어 누락 오류가 갖고 있는 연구의 한계를 인지하고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연구 대상을 상위 언어권 4개로 좁히고 연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언어권의 전반적인 오류 양상 빈도 결과를 비교하여 대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누락을 대상으로 One-way ANOVA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어가 다른 언어권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별로 ‘보조사’, ‘목적격조사’,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순으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어권별 숙달도 빈도 비교의 ANOVA 값을 표로 정리하였다. 일본어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반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에서는 초급이 중급, 고급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오류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음에도 심층면담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이 수반되지 않아 언어권별, 조사별 누락 오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러 언어권의 조사 누락 오류를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심층면담,

요구조사 등을 통한 학습자의 조사 누락 오류에 대한 질적 분석과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Particle Omission Errors of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Lee, Jeonghyeon(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article errors of Chinese, Japanese, Vietnamese, and English-speaking Korean Learners using the Korean Learners' Corpus. One-way ANOVA is used and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are describ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languages. Comparison of the frequency of particle errors by language shows that Japanese significantly makes less particle errors than the others. Omission error analysis shows some differences in the order in Chinese, Vietnamese, and English, except for Japanese, but generally topic(eun/neun) and object(eul/leul) particle errors are the highest, followed by subject(i/ga), locative/adverbial(e/eseo), genitive(ui) particle errors. On the other hand, locative/adverbial particle 'e' and genitive particle 'ui' are high in Japanese. In comparison of the frequency of proficiency in each language, Japanese do not produce significant results due to the relatively low frequency of particle omission errors, whereas Chinese beginning and intermediate learners show higher frequency of particle omission errors than advanced and Vietnamese and English beginning learners show higher frequency of particle omission errors than intermediate and advanced.

Key words: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Korean Learner Corpora, Error Annotation Corpora, Error Annotation, Particle errors, Omission Errors, Korean Language Education

[참고문헌]

■ 논문

- 국립국어원, 『2016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6, 1-146면.
- 김경훤·이금희,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에 대하여—중국인 학습자의 대학 글쓰기에서 보이는 조사 오류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36호, 반교어문학회, 2014, 93-130면.
- 김정숙,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대학 진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0, 1-19면.
- 민현식,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2008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19-39면.
- 박석준, 「국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대학(원) 입학 후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008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195-217면.
- 박석준,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 자료 구축 방안: 어휘 자료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5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0, 23-50면.
- 박석준·김용현, 「한국어교육학에서의 학문 목적 한국어 연구 동향 분석」, 『언어와 문화』 제9권 1호, 2013, 73-105면.
- 오경숙,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연구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제2013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3, 54-56면.
- 유문명, 「학습자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목적적 조사 오류 연구」, 『언어와 문화』 제15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9, 223-249면.

장미정,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기술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 요구 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제27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251-273면.

장석배,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에 대한 계량적 연구-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제47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9, 25-57면.

Chen Jing·이정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조사 누락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58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317-349면.